

뉴미디어 환경과 언론인 직업 규범의 변화:

리영희 언론정신을 통한 탐색연구

이봉현*

디지털 미디어 기술 발달에 따라 언론인의 직업 규범과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먼저, 19세기 말 이래 확립된 객관주의, 전문직주의 언론 규범이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서 어떤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직업 언론인의 직무 수행에 △ 인식론 측면 △ 전문직 정체성의 측면 △ 독자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돼 공유되고 있는 언론 규범에 이런 일반적인 변화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중견 언론인들을 심층 인터뷰 해 조사했다. 인터뷰에 앞서 언론인들로부터 '기자 정신'의 역할 모델로 인정받는 리영희 선생(1929~2010)의 언론사상을 도출해 비교의 준거로 활용했다. 즉, 이 연구는 △실증적 글쓰기를 통한 실체적 진실 추구 △전문성예의 열정 △독자(민중)와의 상호교육 등 리영희의 언론 정신으로 상징되는 한국적 언론 규범이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은 실체적 진실추구, 전문성 추구, 심층·탐사보도 등 리영희의 언론정신으로 상징되는 전통 저널리즘의 규범과 가치가 직무 수행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보았다. 또 이런 정신이 현재 한국 저널리즘이 봉착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언론인들은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저널리즘의 가치를 열린 자세로 수용자와 밀접히 상호작용 함으로써 성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진실을 가려 내 제시하는 '판별자'의 역할, 시민저널리스트와 전문가 블로거의 자원을 폭넓게 활용해 뉴스를 생산하는 '네트워크 연결점', 수많은 정보를 엮고 정리하는 '뉴스 코디네이터' 등으로 역할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제공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제어: 언론인 직업규범, 리영희, 언론정신, 디지털미디어

1. 문제제기

저널리즘은 18세기에 등장한 이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뉴스는 공동체가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공적지식(public knowledge)로 발전했다. 특히 공중(public)의 성장과 함께 신문 저널리즘은 공적지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치적 숙의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런 제도로서의 저널리즘은 '객관성, 중립성, 책임성' 등 1900년대 초부터 확립된 언론의 '전문주의'(professionalism) 규범과 가치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

그러나 미디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저널리즘의 양식이 바뀌고 언론인의 직업 규범¹⁾과 가치 역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대안매체가 생겨났다. 생산자를 겸하는 능동적 수용자가 등장했으며 뉴스의 소비양식이 변했다. 이에 따라 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가 뉴스 생산

*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hllee@hani.co.kr)

1) 여기서 '직업적 규범'은 언론인이 자신의 저널리즘 활동에 대해 가진 사명의식, 이를 실천하는 방법적 태도, 내면화된 윤리적 판단 기준을 포괄하는 말로 썼다. 언론사상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및 유통에서 누리던 독점권이 약해졌고, 이런 독점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던 언론의 신뢰성 역시 하락하고 있다. 즉, 디지털화로 뉴스가 생산, 유통, 소비되는 저널리즘의 생태계가 크게 변했고, 이런 변화는 동일 공간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의 “가치와 규범”의 변화를 가져왔다 (김성혜·반현 2012, 34쪽).

객관주의 및 전문직 언론관을 지탱하는 핵심 기제인 ‘게이트 키핑’에 대한 인식만 해도 그렇다. 신문, 방송 등 전통매체는 그날 발행되는 뉴스를 최종 생산물로 인식하고 언론사 조직의 엄격한 위계적 생산 구조 아래서 뉴스를 선별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의미를 부여해 수용자에게 제공했다. 반면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의 뉴스 생산은 신속한 발간에 더 큰 의미를 두며, 사실 확인과 의미 부여는 뉴스가 나간 이후 보충 취재나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거쳐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주요한 게이트 키핑이 출판 이후에 열린 시스템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구본권 2005).

역사를 살펴봐도 미디어 기술과 형식의 변화는 언론인의 직업적 규범 양식을 바꿔왔다. 19세기 말 페니프레스가 나오기 이전의 기자들은 재정 후원자를 옹호하는 정파성을 강하게 띠었다. 이후 광고를 기반으로 한 상업언론 시대가 열리며 객관주의 언론관과 중립적 관찰자로서의 언론인 규범이 보편화되었다 (Ward 2009).

이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언론인의 규범과 가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중견 언론인을 심층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일반론으로서 19세기 말 이래 확립된 객관주의, 전문직주의 언론관에 디지털 기술이 어떤 변화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이런 것들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언론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모델이 각 나라마다 다르고 디지털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한국 언론에 대입하기는 어렵다. 한 예로 민주화가 된 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진실 보도를 위해 언론인이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현실은 언론인을 단순히 객관적, 중립적 관찰자로 머물 수 없게 하는 한국적 특수성이다.

이 점을 고려해 이 연구는 국내 언론인과 학자들로부터 직업 가치와 규범의 롤 모델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리영희의 언론사상을 추출해 비교의 준거로 설정했다. 이는 한국 저널리즘 환경에서 형성된 언론인 가치와 규범 모델에 기술발달에 따른 보편적인 변화의 압력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2. 연구문제와 방법

디지털 미디어 기술발달로 인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변화가 직업 언론인의 ‘가치와 규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했다. 기술의 변화는 미디어와 그 종사자에게 매우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논문에서는 일반론으로서의 변화를 먼저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전통적 언론 규범과 가치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현장 언론인을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언론인 규범과 가치에 어떤 측면에서 변화의 압력을 가하나?

연구문제 2) 대중매체 시대 한국 언론인의 역할 모델인 리영희의 언론 사상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언론 현장에서 리영희 언론 정신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규범과 가치가 어떻게 유지 또는 변용되고 있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문헌 연구를 했다. 특히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온 분석의 틀을 염두에 두고 리영희의 저작과 그를 다룬 평전을 읽음으로써, 그 뒤에 이어지는 언론인 인터뷰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 질문을 할 것인지를 파악했다. 리영희는 2000년 4월 ‘신문의 날’ 을 맞아 한국기자협회가 한 조사에서 ‘현존하는 기자중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기자들의 귀감으로 인식됐다. 따라서 그의 언론 정신을 한국 언론인의 전통적 직업규범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이후 언론인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언론인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인터뷰 대상은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하거나, 탐사·심층 보도에서 객관적으로 역량을 인정받은 현직 언론인을 선정했다.

<표 1> 인터뷰 대상 언론인

| 이니셜 | 소속 | 특징 | 인터뷰 일시 |
|-----|------------|------------------|-------------|
| A | 중앙일간지 기자 | 파워블로거 | 2012. 5.8 |
| B | 온라인 매체 경영자 | 기자 및 기술책임자 경력 | 2012. 5.2 |
| C | 언론비평지 전 간부 | 팟캐스트 프로그램 운영 | 2012. 4.28 |
| D | 방송사 해직기자 | 팟캐스트 프로그램 운영 | 2012. 4.30 |
| E | 지상파 방송사 기자 | 온라인 파업뉴스 제작 책임 | 2012. 5.14 |
| F | 언론비평지 간부 | 파워블로거 | 2012. 5.7 |
| G | 중앙일간지 기자 | 온라인 취재 담당자 | 2012. 5.15 |
| H | 경제일간지 기자 |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 | 2012. 5. 2 |
| I | 중앙일간지 간부 | 탐사보도로 한국기자상 등 수상 | 2012. 5. 16 |
| J | 중앙일간지 기자 | 파워블로거 겸 트위터리언 | 2012. 4. 27 |

물론 10명의 언론인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답변은 학계 전문가나 일반인이 가진 의견과 다를 수도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언론 환경에서 언론인 직업규범과 가치의 변화를 파악하려면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란 판단 아래 연구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준비된 문항을 기초로 질문을 하되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당 평균 1시간 동안 (녹음시간 기준) 진행됐다. 인터뷰 내용은 풀어서 기록했으며 A4 용지 80 여 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3. 분석의 틀: 저널리즘 환경 변화와 언론 규범의 변화 압력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일선 언론 현장에 큰 변화를 몰고 와서 “어떤 게 바람직한 기자냐?”에 대한 물음을 새롭게 던지고 있다. 즉, 뉴스 생태계가 크게 변하는 “탈근대 저널리즘” (김사승 2010, 94쪽)에서 기자의 정체성과 역할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전통적 저널리즘의 직업 규범과 가치가 직면한 변화의 압력을 인식론적 측면, 기자의 정체성 측면, 독자와의 상호작용 측면 등 3가지로 파악했다.

1) 인식론 측면의 변화

전통 저널리즘은 실체적 진실의 존재를 가정하고 이를 추구한다. 기업형 미디어에 속한 언론인은 ‘지식의 위계구조’ 아래서 작업하기 때문에 ‘진실’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Fraser and Dutta 2010, 323쪽). 게이트키퍼 등 뉴스 생산과정의 통제구조는 “간주관화”를 통해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기제이다. 또 이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은 실체적 세계에 대해 단일한 인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자가 상황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는 단 하나의 ‘단어’를 찾는데 골몰하거나, 단일 리드 (이른바 ‘야마’)를 찾는 데서부터 기사 쓰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김사승 2010, 97쪽).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기술 변화에 따른 뉴스 생산 주체와 과정의 변화는 전통 저널리즘의 이런 세계 인식 기제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뉴스룸 외부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비선형적으로 이뤄지는 “주석적 뉴스생산”은 주관성을 그대로 드러낼 뿐 이들 사이의 균형이나 타협을 추구하지 않는다 (김사승 2010, 96쪽). 즉 “주관적 인식 주체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며 이들을 병립시키는 데 초점”이 있으며 “고정된 형식이나 정형화된 틀을 강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립적 주체간 갈등의 평행, 혼돈, 파편화 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김사승 2010, 94쪽).

통합된 뉴스룸 안에서 직업 언론인들에 의해 일어나는 “2차 뉴스생산”도 단일한 실체적 진실의 약화라는 점에서 주석적 뉴스생산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기존 뉴스를 해제하고 다른 것과 섞어 재구성하는 과정은 뉴스 이벤트에 대한 수용자 접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뉴스 이벤트에 대해 하나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양한 관련성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이 단일한 게 아니라 다원적임을 보여준다. 즉 “실체적 진실의 단일성 보다는 다양성을 드러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김사승 2010, 95쪽).

단일한 실체적 진실이 있다고 믿고 증거의 추적과 엄밀한 입증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전통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이런 변화는 혼돈에 가깝다. 뉴스룸 외부에서 언론인 역할을 하는 블로거들 또는 언론인 블로거들 자신에게도 객관성이란 점점 문제가 많은 개념이 되고 있다 (Roson 2010). 채널이 다양하게 열려있고, 어떤 의견이든 골라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기자가 객관적 실체를 추구하기 보다는 차라리 저널리스트 자신과 취재원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가치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다 (Gillmor 2005).

이런 변화는 다양한 개인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검증되는 장이 열림으로써 디지털 민주주의가 꽃 필 여지를 마련한다. 하지만 동시에 상업적 경쟁 등과 맞물려 뉴스 스토리 안에서 주관과 의견이 객관과 사실을 압도하는 현상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다양한 버전의 파편화된 뉴스가 늘어나며 수용자

는 프로야구 중계방송의 이른바 ‘편파 해설’을 골라서 들듯이 자신의 정서적 지향에 맞는 뉴스를 골라서 소비한다.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 언론의 정파성은 한 층 심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팩스 뉴스>에서 보듯, 때로는 정파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의 경우처럼 사실과 의견, 뉴스와 일상 대화가 섞이며 저널리즘과 저널리즘이 아닌 것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도 찾아지고 있다. 수용자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열광하는 ‘정치적 팬덤’의 저널리즘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2) 전문직 정체성 측면의 변화

언론인은 사회 각 영역의 정보를 선별, 취재, 논평하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갖춘 전문직(profession)으로 인식되어 왔다 (김옥조 2004, 17쪽). 전문직이란 의사, 법률가, 교수, 약사처럼 오랜 수련 기간을 거쳐서 아무나 하기 힘든 지적, 기술적 능력과 자율적인 규범과 윤리를 갖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직업군을 말한다.²⁾ 미국에서는 1908년 저널리즘 스쿨이 처음 개설되는 등 20세기 들어와 객관주의, 균형, 사실 확인의 규율, 취재원 보호 등 언론윤리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전문직으로서의 언론인이 자리를 잡게 된다 (김성해·반현 2012, 220쪽). 전문직이란 인식은 사회적 책임과 자율적 규제의 토대가 된다. 즉 “전문가는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부터 중요한 직업적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 정식으로 전문교육을 받고 그룹이 정한 품행 규범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국한된다”(Shirky 2008, 68쪽).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언론인에게 가하는 변화의 압력은 근원적이어서 전문직으로서 언론인의 존재 의의를 회의하게 하고 있다. 공훈의 (2010, 66쪽)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기자는 더 이상 전문직이 아니다”고 밝힌다. 누구나 기사를 써서 올리는 시대에 사실을 걸러내고 확인하는 기능의 가치는 줄어들었고 (Newman & Dutton 2011, 15쪽), 무엇이 뉴스냐에 대한 판단 역시 전문주의에 입각한 언론인의 시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다. 즉, 뉴스나 정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주체를 언론인에서 개인,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최민재·양승찬 2009, 108쪽). 여기에는 “사실이든 아니든 대중에게 그대로를 과감하게 노출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하여금 진위를 가려내도록 맡기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생산한다”는 집단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공훈의 2010, 119쪽).

이들에 의하면 언론의 전문성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상당 부분 정보 생산과 유통의 독점이란 희소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런 불완전한 전문성은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생산 및 유통의 채널이 다양화하면서 무너진다. 미국의 언론학자 클레이 셔키(Clay Shirky)는 “기자라는 직업도 알고 보면 특정 생산 형태에 결부되어 있다”고 말한다 (2008, 80쪽). 즉 “기자처럼 오랜 세월 동안 고정된 범주처럼 보이던 것이 알고 보니 출판 비용 때문에 우연히 생긴 희소성과 결부되어 있었다”며 “그 희소성이

2) 20세기 이전에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이 모호했다. 하지만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일부 직업이 제도로서 사회적으로 조직화되며 전문지식을 증명할 자격을 가진 프로들에 밀려 아마추어는 점차 각 분야에서 자리를 잃는다. 새로 등장한 프로페셔널리즘은 “지식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옹호하고 의사나 교수 등 직함과 자격에 근거해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다. 과거 아마추어리즘이 부유한 신사들의 재력으로 유지된 반면, “현대 사회의 직업들은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규율된다” (Fraser and Dutta 2010, 313쪽).

사라지면 걸보기에 안정된 것 같던 범주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2008, 87쪽).

이런 변화에 직면한 언론인은 “최적화된 능력과 특징을 가진 전문화된 문화로서의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주체라기보다는 단순한 “정보가공자”(Information worker)로 변화할 위험성이 증가했다 (황용석 2011, 349쪽). 건강한 민주주의 운영에 필요한 공적지식의 생산자로서 언론인은 흥미로운 무료 정보를 생산하는 직업인이거나, 여러 미디어 텍스트 생산자 가운데 하나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언론이나 언론인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널리즘의 새로운 정의나 실천방식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폭넓은 공감에 있는 게 사실이다 (황용석 2011, 349쪽).

3) 상호작용 측면의 변화

매스 미디어에서 출발한 저널리즘은 처음부터 소수의 뉴스 생산자가 이름 없는 다수의 수용자를 향해 일방적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구조였다. 한 공동체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 독자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 지, 복잡한 이슈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언론에 있었다. 언론이 외면하는 의제는 중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웠고 국민은 언론의 판단과 편집권을 존중했다. 독자의 반응을 제한적으로 수용하기는 했지만, 전통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계몽주의’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직업 언론인이 수용자인 시민들과 어떻게 협업을 해서 뉴스를 생산할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독자는 생산하며 소비하는 ‘프로슈머’가 됐다. 기자보다 뛰어난 전문가들이 언론사 밖에 포진해 있고, 이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분석과 해설을 제시하는 일이 흔해졌다. 아울러 뉴스의 소비양식도 변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읽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며, 지인에게 추천을 하는 일이 보편화됐다. 이를 통해 무엇이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사회적 의제인 지 드러나며, 집단 지성을 발휘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전통 미디어의 뉴스와 달리 온라인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뉴스는 일상에서 남에게 들고 나도 전해주는 ‘이야기’와 같은 것으로 전환된다. 박선희 (2012, 420~422쪽)는 “소셜네트워크는 뉴스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마을 어귀 정자나 공동 우물과 같은 장소로 인식하게 한다”며, 이야기 공간에서 “사람들은 일과 놀이의 융합으로써 끊임없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며 소비되는 사회적 결속을 만들어 낸다”고 밝힌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만드는 ‘이야기 공동체’는 참여와 공유를 중시하는 미래의 시민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잘 활용해 2011년 <뉴욕타임즈>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온라인 매체가 된 <허핑턴포스트>의 성공이 이를 말해준다. 이에 따라 미국 AP 통신의 짐 케네디 전략담당 부사장은 “미래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가 무엇인 지 고민하기보다 그들이 어디에서 뉴스를 소비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라”고 조언한다(설진아 2011, 176쪽).

이런 변화 속에서 기자는 편집국 밖의 일반인들과 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강해졌다. 새롭게 나타난 저널리즘은 생산방식의 측면에서 ‘대화형 저널리즘’(conversational journalism)을 지향한다. <우리가 미디어다>의 저자인 댄 길모어는 미래의 저널리즘은 일방적인 강의방식이 아니라 대화 또는 세미나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민재 · 양승찬 2009, 249쪽). 대화형 저널리즘의 뉴스 생산 과정에서는 △ 정보를 가능한 다양하게 제시하고 △ 수용자의 반응을 통해 정확성을 검증하며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용자와 대화와 토론을 계속하며 △이슈가 발전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려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한다(최민재·양승찬 2009, 120~121쪽).

이런 필요성에 부응해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나 공영방송 <BBC>는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를 독자와의 대화나 뉴스 소재 발굴에 활용하면서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기법을 발전시켜왔다 (Newman and Dutton 2011, 17쪽). 또 소셜미디어와 사용자생산콘텐츠(UGC)가 일반화되면서 언론은 발생 뉴스에서 특종을 하려는 생각을 단념하고, 개인들이 올리는 콘텐츠를 어떻게 잘 선별하고 큐레이팅 할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Newman 2009, 2쪽). ‘집단협업’(crowdsourcing) 저널리즘 (황용석 2011)이나 영국 <가디언>의 ‘오픈저널리즘’이 이런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다. 아울러 언론인은 게이트 키퍼에서 ‘게이트 워처’(gatewatcher) (Burns 2005) 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단지 뉴스를 생산하는 것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먼저 퍼져 나간 뉴스에 대해 반응하고, 확인하고, 맥락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리영희의 언론사상을 통해 본 전통적 규범 모델

리영희의 언론사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되어 왔다. 그가 살아있을 때 나온 평전만 해도 여러 권 (김만수 2003, 김상웅 2010 등)이 있다. 그 스스로 십 수 권의 저서를 남겼다. 이 논문은 그가 남긴 저서를 분석해 그가 실천으로 보여준 언론 사상들을 도출했다. 특히 이 논문의 목적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주는 변화의 압력이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규범과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리영희의 언론 사상을 앞 절에서 도출된 3가지 변화의 틀에 맞춰 정리했다.

1) 인식론적 측면

(1) 실체적 진실 추구

리영희에게 글쓰기는 이상(偶像)에 맞서 진실을 드러내는 이성의 활동이었고 이론과 실천이 합일된 것이었다. 리영희에게 이상은 광신적인 냉전, 반공, 극우, 독재 이데올로기 등이었다. 리영희는 실천과 공부를 통해 한평생 초지일관 이들 이상에 맞서 싸웠다. “진실은 비판을 낳”으며 “진실에 근거한 비판의식과 비판정신이 리영희 사상의 핵심” 이라는 김만수 (2003, 608쪽)는 리영희가 “모든 상식이 뒤집혀진 사회”에서 “계몽의 방식으로 상식을 실천”했다고 평가한다. 1977년에 나온 <이상과 이성> 서문에서 리영희는 이렇게 밝힌다.

“나의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서 그친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눠져야 할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그것은 이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이다” (리영희 1980[1977], 7쪽).

그가 이성으로써 이상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은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해 겪은 경험이 바탕이 됐다. 연락 장료로서 1951년 거창양민학살 사건의 참상을 목격한 뒤 그는 “이데올로기

의 광신(狂信) 사상과 휴머니즘에 대한 멸시를 깨쳐야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끼게 됐다고 밝힌다 (리영희 1984, 274쪽). 그의 이성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들, 상식, 강요된 진실을 의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리영희는;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의무에 거의 무조건 맹목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던 개체의 내면에서는,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회의하고 질문하고, 허위와 가식으로 가려진 진실 된 가치를 밝혀내어, 진실 이외의 그 무엇에 대해서도 충성을 거부하는 종교와 같은 신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1980[1977], 312쪽).

우상의 위선을 밝히기 위해 그는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다. 군사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 언론과 대학에서 각각 두 번 해직됐고 세 번 재판을 받은 것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지식인의 책무를 이행하려는 몸부림이었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영원히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발전, 사회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 (리영희 1980[1977], 8쪽).

그런 리영희이기에 잘못된 언론은 언론, 언론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보도기관’ 및 ‘보도기관 종사자’라 써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권력 지향적 교수와 언론인들은 역대 독재자들과 부패, 타락한 그 권력집단에게 교활하고 사악한 반민주적 우민정책의 지혜와 수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리영희는 비판한다 (리영희 1996).

(2) 실증적 글쓰기

전문적인 언론인이자 학자로써 리영희가 글을 써 온 원칙은 방법 측면에서 “방대한 자료의 섭렵을 요구”하는 “실증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1980[1977], 161쪽). 그렇기에 리영희는 앉아서 받는 자료로, 발표하는 자료로 기사를 쓰지 않았다. 그가 글을 쓰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자료 수집에 70%, 구상에 10%, 나머지 20%는 쓰는 것이었다. 200자 원고지 9매를 쓰기 위해 예닐곱 권의 책을 뒤적이는 것은 보통이고, 칼럼 한 꼭지를 쓰기 위해 미국 상원 의회록 1,200 쪽을 읽고 겨우 한두 가지 통계자료를 찾아 쓸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안철홍 1994). 리영희는 “다른 필자들이 적당한 선에서 유야무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글을 쓰는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제의 규명은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 (김만수 2003, 66쪽). 리영희 스스로 1996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실증론적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통계와 증거를 가지고 알게 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지 나는 가치판단을 안 해요. 자료를 찾으려면 90%는 썼다고 봐야지요. 자료를 구하고 정리해서 분류해서 보존하는 일이 힘들었어요. 60~70년대는 외국 출입이 제한되어 국내 대사관으로 주 일회 순례를 다녔어요. 자료로 30년을 하니까 이제 지쳤어요” (오숙희 1996).

리영희가 자신을 닮은 글쓰기를 하는 김민웅을 높이 평가하며 1996년에 나온 <패권시대의 논리>에 쓴 발문에서도 이 점이 드러난다. “(김민웅의 책은) 글 하나하나에서 이유와 근거가 분명하고 이론적 틀이 단단하다. 나 자신이 자료에 대한 엄격한 판독과 그런 글쓰기 원칙 및 방법론을 고집스레 지켜온 입장에서…”(강준만 2004, 229쪽).

리영희의 실증적 글쓰기 정신은 그의 문체에도 구현된다. 그는 문장에 대한 조탁으로 문학성이 깃든 문장을 구사했지만 현학적으로 꼬거나 뒤틀지는 않았다. 리영희가 김민웅의 문체를 칭찬한 대로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난해하게 꼬아드는 문화주의적 세련’이 담고 있는 허영스런 논리들과 날카롭게 대조”되는 것이 또한 그 자신의 문체였다(강준만 2004, 229쪽).

2) 전문직 정체성 측면

리영희는 글을 쓰는 3가지 원칙을 갖고 실천했다. 첫째,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있을 것. 둘째, 독자들의 판단을 위해 가장 균형 잡힌 형태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 줄 것. 셋째, 그 자료들이 무얼 뜻하는가, 즉 관점·의미·사상성을 밝혀줄 것 등이다(강준만 2004, 218쪽).

언론인으로서 이런 글쓰기 자세는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건강한 판단력과 필력, 윤리적 감각으로 무장한 전문직으로서의 전범(典範)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영희는 훌륭한 기자는 “현상을 관찰하는 객관주의적 토대로 풍부한 지식과 ‘건전한 주관’이 요구된다”며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의 머리로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가기는 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라는 말로 기자가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이유를 밝힌다(리영희 1974, 377, 378쪽).

이런 글쓰기 원칙을 지키는 리영희는 어느 언론인 보다 학구적이었다. 리영희는 자신의 삶이 “60%의 아카데미와 40%의 저널리즘의 결합”이라고 말할 만큼 공부하는 기자였다. 리영희는 집에 쌓이 있는 지 걱정해야 하는 박봉에도, 보고 싶은 책을 사지 않고 배기지 못했다. 일이 끝난 뒤 집에 오면 새로 산책을 읽는 설렘과 재미에 폭 빠져 지내기도 했다. 영어는 물론 일어, 불어에 능숙하고 중국어도 해독이 가능해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자료들을 섭렵했다. 특히 국제관계와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40대 부터 “일급 논객”이었으며, 국내 학계의 누구와 토론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풍부한 지식과 식견을 갖추고 있었다(김상웅 2010, 243쪽).

투옥과 해직으로 언론인으로서 펜을 빼앗겼을 때는 대학으로 들어가 저술 작업에 몰두했다. 지식인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언론활동은 사실 책을 통해 이뤄졌다. 리영희의 대표작인 <전환시대의 논리>(1974)나 <우상과 이성>(1977)이 그러한 예이다.

그는 이렇게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언론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한 예로 리영희가 1988년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 연구>란 논문을 들을 수 있다. 이 논문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세하다는 허위의식 아래 불신과 증오의 대결을 반복하는 상황에 마침표를 찍는 역작이었다. 이 논문은 국방과 안보문제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고, 이후 정책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강준만 2004, 172쪽).

3) 독자와의 상호작용 측면

언론인으로서 리영희가 글쓰기에서 목표한 것은 대중을 “의식의 깊은 중독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오랫동안 주입되고, 키워지고, 굳어진 신념체계와 가치관”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창조적 파괴였다(리영희 1980[1977], 8쪽). 리영희는 어두운 방안에 갇혀 감각이 마비된 사람에게 “진실을 보는 시력과 생각하는 힘을 되살려 줄 신선한 공기를 주는 것은 차라리 최악스러운 일 일 수도 있지 않느냐”(1980[1977], 7~8쪽)고 노신의 말을 인용한 한 것은 진실을 먼저 알고 민중을 각성시켜야 하는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한 것이기도 하다. 리영희가 고난을 감수하며 언론인으로서, 학자로서 정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독점에 짓눌리고 수구, 냉전적 의식에 찌든 국민 대중(민중)에 대한 연민과 지식인으로서 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중을 연민하면서도 리영희는 민중에 대해 냉철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1960~70년대 제 3세계의 지식인들이 민중을 미화하고 이들을 변혁운동의 근원적 동력으로 이상화한 것과는 맥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리영희가 한국전쟁 동안 동생의 죽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며 사회와 인생에 대해 느낀 체험이 바탕이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친척들과 마을사람들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가슴에 새긴 채 돌아가셨으니 가슴 아픈 일이다. 훗날 내가 톨스토이의 민중 생활 작품에 대해서보다는 노신의 작품에 대해 더 많은 공감을 느끼는 까닭이 어찌된 [...] 당시 중국 농민을 감상적으로 미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무지와 탐욕, 우직과 이기주의, 걸치레와 유교적 친족관념 속의 냉혈적 무관심 따위의 속성을 냉정하게 묘사했고, 그와 같은 인간상이 바로 나와 나의 가족이 빠져리게 체험한 그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리영희 1984, 303~ 304쪽)

그러기에 리영희는 팬을 뺏겼을 때 대안언론을 부단히 모색하며 어둠의 동굴에 갇힌 민중의 의식수준 고양을 모색한다. <말>지를 발행하는 민언련 등에서도 활동을 했고, 1987년 국민적 민주 항쟁으로 열린 정치적 자유의 공간을 활용해 <한겨레신문> 창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한겨레신문> 창간의 기쁨을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대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느꼈지. 캄캄했던 하늘에 번쩍 광명의 빛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라고 술회한다(권태선 2004).

이런 과정은 본질적으로 ‘계몽적’이지만 민중의 처지를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배우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즉 높은 위치에서 민중(독자)을 가르치려 들거나, 그들과 격리된 지식 기술자로 살지 않고 늘 글쓰기의 ‘준거’(reference)를 민중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까닭 없이 미화하거나 이상화하지 않는 것은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 능력과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일이다. 강준만이 요약하듯이 리영희는 민중의 무지, 탐욕, 이기주의, 냉혈적 무관심 등 모든 것이 “민중의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는 전제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민중과의 ‘상호교육’에 나서”게 된다(강준만 2004, 41쪽).

5.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한국 언론인 가치 및 규범의 변화

중견 언론인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미디어 환경이 리영희 언론 정신으로 대표되는 규범과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물었다. 대체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진실 추구, 권력 감시, 실증적 접근 등의 전통적 규범과 가치가 직업 언론인들의 여전한 책무라는 인식을 보였다. 다만 그 실천 방법에서 좀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고 독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 인식론: 단일한 세계 인식 추구

(1) 실체적 진실의 가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주석적’ 뉴스 생산과, ‘2차 생산’ 저널리즘 확산으로 다양한 버전의 진실이 공존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이 됐다. 실제 국내에서도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처럼 사실과 허구, 주관과 객관이 섞인 오락성 저널리즘 포맷이 속속 등장해 전통 매체 못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뷰에 응한 언론인들은 실체적 진실, 즉 단일한 버전의 진실 추구가 여전히 중요한 언론인의 직업적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서 실체적 진실이란 공정성, 정확성과 함께 언론인의 자의적인 판단을 피하고 평균적인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객관성을 포괄한 개념으로, 기자가 충분한 취재를 통해 단일한 세계 인식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옥조 2004, 216쪽). 단일한 진실에 대한 믿음은 진실을 가장한 세력, 즉 우상과의 대결을 저널리즘의 사명으로 삼는 리영희 정신과 맥이 통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도그마나 곡학아세와 같은 ‘우상’은 견제하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었다. 즉 ‘진실의 다의성’이나 ‘다른 버전의 진실’을 말하기 이전에 정치, 경제적 권력이 만들어내는 명확한 거짓과 불의에 도전하는 것은 언론인의 변치 않는 과업이란 것이다. 방송기자 D는 이렇게 말한다.

“권력이 만드는 논리와 명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언론인이라면 해야 한다. 4대강 사업, 정리하고 등에 대해 권력이 유포하는 논리를 언론이 당연히 검증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판해야 한다. 권력은 당연히 자신들이 추진하니까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종 정책을 만들고 통치이념이나 철학 등을 유포할 텐데 그걸 언론이 아닌 누가 견제하겠는가? 나는 이런 것을 ‘우상’으로 이해한다.”

경제일간지 기자 H는 분단 이데올로기나 권력·재력 같은 일방적이 힘이 공정하고 반칙없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우상’이라며 “저널리즘은 이들에 포섭된 상태인데, 기자는 스스로 이런 우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언론비평자 간부인 F는 우상과 맞서 싸우려면 뉴스룸에서부터 기본적인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의 부조리와 맞서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의 형식 변화와 관련해 주관성과 정파성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선호가 증가하는데 대해 언론인들은 혼재된 인식을 보여줬다. 상당수 응답자는 객관성이나 불편부당함 같은 저널리즘의 전통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지상파 방송의 파업뉴스의 제작 방침을 놓고 일선 기자들이 벌인 토론과 관련해 방송기자 E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새누리당이 과반을 획득하면 우리의 파업은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일단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내놨지만, 일선 기자들은 (편파뉴스를 해서는 안된다며) 수용을 하지 않았다. [...] 논쟁을 많이 했지만 우리는 공정방송을 택했고 [...] 결국 그게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진실의 다의성이나 심화되는 정파성에 대한 회의감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쏠려 다니는 대중정서 영합하거나 진영논리에 빠져 실제적 진실을 외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도 표시됐다. 언론전문지 간부를 지낸 C는 2011년 일어난 박노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이 진보진영 내에서 민감한 이슈가 불거졌을 때 언론의 보도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언론인들이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 사실은 이렇고 진실은 이렇다”고 밝혔어야 하나 “오히려 진영논리에 매몰되고 진영내부 정서에 굴복한 게 많다”고 비판했다.

또 팟캐스트 등으로 가속화하는 저널리즘의 오락화에 대해 중앙일간지 기자 G는 “<나꼼수>가 어느 정도 저널리즘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본다”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저널리즘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데 [...]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책임방기”라고 말했다.

반면, 다채널 환경에서 자신의 정파적 성향이나 취향에 맞는 뉴스를 골라서 소비하는 것을 저널리즘의 외연이 넓어지는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즉 “뉴스를 골라 듣는 나만의 뉴스(소비) 현상이 앞으로 더 많아 질 것”이며 “나꼼수 팬덤 현상에 대해 비판도 많지만 [...] 그런 것은 어느 정도(독자에 의해) 시정되거나 자정될 것”(언론전문지 간부 E) 이란 응답은 이런 인식을 보여준다.

(2) 실증적 글쓰기의 유효성

실증적 글쓰기는 실제적 진실을 추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다. 우상에 맞서 진실을 추구하는 리영희의 언론 활동은 방법론적으로 치밀한 실증적 작업을 통해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증적 글쓰기를 할 때 언론인은 주어진 정보나 보편적인 해석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며, 드러난 면보다는 근본적인 면에 천착하고, 단편적인 사실 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안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인터뷰에 응한 언론인들은 ‘미디어 빅뱅’으로 정보가 급증하고 진실을 주장하는 의견이 넘칠수록 이를 선별, 확인해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는 실증적 작업이 직업 언론인의 역할로서 한층 중요해진다고 보았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구하기 어려웠던 통계자료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언론인이 실증적으로 기사와 논평을 하는데 유리한 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전문지 간부 F는 “정보공개와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쉬워져 데이터 저널리즘이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라며 “숫자에서 팩트(사실)를 끌어내고 뻔히 보이는 것이지

만 다가가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언론인이 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오랜 추적과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드러내는 것 역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한층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이런 점에서 출입처 위주의 취재 시스템과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국내 언론의 보도 관행은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란 점을 여러 언론인이 지적했다. 방송기자 D는 출입처 제도와 보도자료 의존 관행을 타파해야 ‘월급장이 기사상’이 깨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자사회가 집단적으로 출입처 제도에 익숙해져 있고, 이게 기득권으로 자리 잡았다”며 “권력을 권 사람이 보도자료를 이용하는 것인지, 기자사회가 정보를 독점하기 위한 것인지의 구분이 안된다”고 밝혔다. 경제신문기자 H는 “오늘날의 저널리스트는 깊이 있는 정보를 발굴해 이를 분석, 해석할 뿐 아니라 재구성, 스토리텔링하고 전 과정을 커뮤니케이션하는 태도와 열정이 요구된다”며 “거의 동일한 취재원을 통해 비슷비슷한 정보가 양산되는” 지금같은 체제에서는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신문·방송이 단편적인 사실들이 아니라 뉴스 이벤트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데 좀 더 힘써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는 팟캐스트 방송 등 대안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해설적 뉴스가 수용자로부터 인기를 끄는 이유를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팟캐스트 방송 진행자인 C는 팟캐스트 방송이 짧은 시간에 많은 청취자를 확보한 것은 하나의 이슈에 대해 방송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총체적인 윤곽을 제공하는 포맷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는 “(트위터 등을 통해) 뉴스의 유통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지만 [...] (대중들이) 스트레이트 (뉴스)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며 “실시간 해설, 분석이 중요한데 그 동안 이런 것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2) 전문성: 네트워크형 전문성

(1) 전문성 발휘 영역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발생기사 등 특정 영역의 보도는 소셜미디어가 앞서는 일이 많다. 아울러 각계의 전문가들이 블로그 활동을 통해 의견을 대중에게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 언론인이 전문성을 발휘할 영역이 어디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권력을 모니터링하는 환경감시와 정제된 공적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지목했다. 특히,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직업 언론인이 좀 더 힘써야 하는 분야가 심층·탐사성 기획 보도라는 의견이 많아, 직업 언론인의 전문성 확보가 새로운 언론 환경에서 한 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무엇보다 정치인, 행정관료, 국방, 외교, 재벌 등 시민들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권력 심층부를 언론사라는 제도적 권위와 조직적 역량으로 파고드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언론인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지적됐다. 경제일간지 기자 H는 “저널리즘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며 진실추구, 권력감시는 저널리스트의 소명”이라고 밝힌다. 또 “시민저널리즘은 이를 보완하고 자극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전문성을 가진 저널리즘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이 미비해 팟캐스트 방송 등 대안적 매체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고 집단적으로 작업하는 전통적 언론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직업 언론인들은 블로거나 시민 저널리스트의 전문적 취재 능력에 의문을 표시했다. 예를 들어 1인 미디어들이 삼성, 검찰,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고 권력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비리의 현장을 적절하게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비평지 간부 출신인 C는 시민기자가 권력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극단적인 얘기”라며 “권력 엘리트층은 방어막을 치고 접근을 제한하는데 [...] 정보란 접근성에서 오는데, 분석이나 칼럼이야 가능하겠만 스트레이트에서 시작되는 (저널리즘의) 지위나 기능은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안의 진위와 경중을 가려주는 언론인의 전문성이 한층 중요해 졌다는 의견을 여러 명이 밝혔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넘치지만 정제된 공적지식은 전문적인 기자의 역량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저널리즘이 발달하더라도 공적지식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활자매체인 신문을 통해 생산되고 전달되는 실정이다. 일간지 기자인 J는 “누리꾼이 정보를 퍼뜨리지만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것인지 판별하는 것은 기자만이 할 수 있다”며 “기자는 여러 정보 가운데 좀 더 집중해야 할 정보를 퍼뜨리는 능력, 정확히 정리된 것을 취재해서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간지 기자 G는 “객관성, 공정성, 사실확인, 불편부당 같은 가치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시대에도 여전히 지켜야 하다”며 “그걸 지키는 방법으로 훈련받은 전문기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이런 일을 소홀히 한 결과가 지금의 저널리즘위기로 나타났다고 보는 언론인이 다수였다. 특히 네이버 등 포털에 종속되어 피상적이고 감각적인 기사를 양산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건전한 공론장의 회복을 위해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높았다. 인터넷 뉴스를 담당하는 G는 “(포털) 독자의 취향에 맞는 기사를 공급하다 보니 맥락적 정보 제공 같은 저널리즘의 (전문적)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시민 저널리즘이 권력감시나 공적지식을 제공하는 기능 까지 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B는 “정치권을 밀접하게 감시하는 엔지오 (비정부기구)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비평가도 있다”며 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파고들어 소셜 미디어에서 다수의 관심을 끈다면 굳이 기자가 아니어도 언론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 언론인 전문성 개념의 진화

권력을 감시하고 정제된 공적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리영희와 같이 관련 지식을 섭렵하고 자료를 축적하며, 건전한 주관에 바탕을 둔 판단력을 기르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언론인의 자질과 덕목이라는 데 언론인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심층·탐사적 취재 능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탐사보도로 명성을 쌓은 일간지 간부 간부 I는 “관심 분야는 몇 개를 선정해 공부해야 한다”며 “이럴 때 사람도 알고 정보의 흐름도 알게 돼 심층보도나 탐사보도가 가능해 진다”고 말한다.

다만,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전문성의 의미가 종전과는 다르게 정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인터넷 등을 통해 세계가 연결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인이 활발한 인적 연결망을 구축해 외부의 전문가, 시민과 협업을 함으로써 정보를 협력적으로 전달하는 것 역시 전문성의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을 연결하는 망의 핵심 지점에 있는 ‘네트워크 노드’(network node) (Newman 2011, 6쪽)나 수 많은 정보를 잘 정리, 배열해 전달하는 ‘코디네이터’로서 언론인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이다.

F는 “다양한 것을 알아서 깊이 있게 취재하고, 관련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문제의식을 끌어내는 것”을 새로운 의미의 전문성으로 지적했다. B는 외부 전문가들의 역할을 좀 더 강조했다. 기자가 나름의 식견으로 어떤 사실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그는 “매체의 시각으로 필터링 된(걸러진)

내용을 독자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는 외부에 널리 퍼져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찾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서 전문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을 것이 그의 의견이다. 탐사보도 역시 이런 방법으로 수행하는 추세라는 그는 “결국 기자의 일이란 사건의 당사자와 전문가를 연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직접 얘기하도록 큐레이션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웹 2.0 시대의 새로운 소통도구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 활용 역시 언론인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수단으로 지적됐다. 언론인이 제한된 신문 지면이나 방송 분량에 매몰돼 사고의 폭과 취재의 깊이가 제한되는 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기자 블로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응답자가 있었다. 파워블로거이자 일간지 기자인 A는 “그리스 금융위기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30매 분량의 원고를 먼저 블로그에 쓰고 신문에는 7-8매로 요약해서 출고한 적이 있다”며 “보통 신문에 먼저 쓰고 블로그에는 나중에 올려쓰는 것을 반대로 한 것인데, 블로그 독자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런 글은 한번 써 놓으면 생각이 정리되면서 비슷한 글에 대한 응용력도 생기고 (기사를 빠르게 쓰는) 순발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3) 상호작용: 수용자의 언어와 감성으로

응답자들은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에서는 직업 언론인이 수용자이자 생산자인 시민을 중심에 두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변화를 추구해야고 밝혔다. 엘리트로서 독자를 가르치겠다는 계몽적인 자세나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대중매체 시대의 관행으로는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직업 언론인이 뉴스 생산에서 시민들의 커진 힘을 인정하고, 그들을 파트너로 바라봐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B는 직업 언론인과 수용자의 관계가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일화로 2011년 2월 한 공중과 방송의 앵커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9시 뉴스에 ‘대형특종’이 나올 것임을 예고한 뒤, 나중에 네티즌의 비판을 받은 것을 들었다. 이 방송사의 특종은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차남 김정철이 싱가포르에서 외국가수 공연을 봤다는 것이었다. B는 “시장자들이 ‘왜 당신들 마음대로 그런 걸 특종이라고 하느냐, 구제역이 확산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김정철이 클럽에서 놀았다는 게 그리 중요하냐’고 반발했다” 며 “이런 것이 (수용자에 의한) ‘카운터 프레이밍’의 사례”라고 말했다. 전문지식을 가진 독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고, 그 목소리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뉴스의 해석과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독자(민중)의 원초적 건강성을 믿으면서도, 단기에는 계몽의 대상으로 접근한 리영희의 언론관 역시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C는 “전통적 저널리즘은 (자신들이 판단해 사회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중시한 점에서 계몽주의적이었다”며 “지금 트위터 등에서 순식간에 이슈가 되는 것은 (언론인에 의해 판단된 사회적) 필요라기 보다는 대중 자신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계몽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공급자의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용자의 언어와 감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수용자의 미디어 소비행태의 변화나 욕구, 감성을 신속히 파악해서 대응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란 응답이 여러 차례 나왔다. 수만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가진 일간지 기자 J는 소속 언론사에 글을 쓰는 것 뿐아니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독자와 소통하는 것도 언론인의 공적인 책무라고 지적한다. 그는 “기사에서 다 전하지 못한 취재 현장의 뒷 이야기를

전해주니 트위터 팔로어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신문에서와 똑 같이) 공적인 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소통이 업무라기 보다 “재미 있어서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뉴스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수용자가 원하는 포맷을 부단히 실험하는 것도 언론인이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넓히긴 길이란 응답도 나왔다. J는 “사실 나꼼수에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 신문이 보도한 것들”이라며 “이걸 토크쇼란 새로운 문법으로 풀어내니까 시민들이 전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H는 “현대 저널리즘은 전통 매체의 틀을 뛰어넘은 새로운 뉴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읽는 뉴스가 아니라 보는 뉴스, 6하 원칙 등 규칙에 매이지 않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결합한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 뉴스룸은 고답적인 조직문화를 유지한 채 낡은 기사생산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역량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슈머인 독자와 소통하되 그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역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직업 언론인이 가져야 할 전문성이란 지적도 있었다. 때에 따라 통속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온라인상의 독자를 무비판적으로 추수하지 않을 만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는 “나는 황우석 사태때 처음 부터 (황 교수의 줄기세포 복제 실험) 문제가 많다고 글을 썼고 (그 결과 대중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결국 (대중은) 다시 (바른 판단으로) 돌아오는데, 빠르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할 일 이라고 말했다.

6. 토론 및 결론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촉발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변화는 언론의 유형 뿐 아니라 언론인의 직업적 규범 및 가치의 변화를 동반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언론인 직업 규범에 미치는 변화의 압력이 △인식론적 측면 △ 언론 전문직 정체성 측면 △ 수용자와의 상호작용 측면 등 3가지 방향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런 일반적인 변화의 압력이 국내 언론인들의 직업 규범에 실제 어떤 변화를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언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언론인들을 심층 인터뷰 했다. 인터뷰에 앞서 위에서 파악된 3가지 변화 압력의 측면에서 리영희의 언론 사상을 조명했고, 인터뷰에서는 이를 예시하며 언론 현장에 실제 어떤 변화가 있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를 물었다.

인터뷰 결과 언론인들은 변화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세계 인식과 실체적 진실 추구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었다. 언론인의 실체적 진실 추구가 권력의 논리나 의심없이 받아들여지는 상식, 강요된 사실 등 여전히 견제한 ‘우상’에 맞서는 이성의 행동 양식이라는 데 여러 언론인이 동의했다. 이런 점에서 “언론이 폐쇄되고 사실과 진실의 발설엔 보복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글을 무기삼아 무섭게 실천한” 리영희의 전통적 언론정신 (강준만 2004, 7쪽)은 시대의 변화를 떠나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정보가 넘치고 진실을 주장하는 의견이 기승을 부릴 수록 이를 선별, 확인하는 것이 직업 언론인의 역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도 공감의 폭이 넓었다. 실증적인 자세로 사실 확인을 하는 리영희식 저널리즘이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일한 실체적

진실과 실증성에 대한 현업 언론인의 이런 인식은 객관과 주관의 구분이 흐려지고, 사실과 허구가 섞인 포맷이 늘며, 정파성이 강화되는 최근의 저널리즘 추세에 대해 이들이 대체로 비판적 의견을 보이는 것과 맥이 통하는 것이다.

또한 1인 미디어 및 전문가 블로거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권력감시와 공적지식의 제공은 직업 언론인의 전문적 영역으로 남을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기자가 한 분야의 지식을 축적해 전문성을 높이고, 탐사보도와 심층보도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외로운 호랑이” (강준만 2004, 8쪽)라는 별칭이 상징하는 것처럼 홀로 각고의 노력으로 품격높은 저널리즘을 펼쳐나간 ‘리영희 방식’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좀 더 열린 자세로 언론인이 네트워크의 한 마디가 돼, 전문가들을 모으고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직업 언론인이 시민과 상호작용하는 범위와 밀도가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도 컸다. 언론이 ‘프로슈머’로 나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며 이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파악해 새로운 전달 ‘문법’과 포맷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를 가르치려는 계몽적 자세나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대중매체 시대의 관행으로는 시민들과 제대로 호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통 저널리즘은 시민 저널리즘과 협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직업언론인은 무수한 정보를 잘 정리, 배열해 전달하는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최근 한국 저널리즘이 위기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널리즘의 위기에 언론인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언론인이 어떤 생각과 태도, 즉 직업적 규범에 입각해 직무를 수행하느냐는 저널리즘의 건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헌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탐색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언론인들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진실추구, 전문성 함양, 심층·탐사보도와 같은 것들이 직무수행에서 여전히 중요한 규범과 가치라고 보고 있었다. 언론인들이 여전히 중시하는 이런 전통적 규범은 현재의 저널리즘이 봉착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이런 가치는 언론인이 좀 더 열린 자세로 독자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언론인이 진실을 가려 내 제시하는 판별자의 역할,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폭넓게 활용해 뉴스를 생산하는 ‘네트워크 연결 고리’, 무수한 정보를 엮고 정리하는 ‘코디네이터’ 등으로 역할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제공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Ⅰ 참고문헌

- 강준만 (2004). 『한국현대사의 길잡이 리영희』, 서울: 개마고원.
 공훈의 (2010). 『소셜미디어시대, 보고 듣고 뉴스하라』, 서울: 한스미디어.
 구분권 (2005).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뉴스가 되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권태선 (2004.3.4). 인터뷰/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긴 안목에서 역사를 보라 『한겨레』, 21.
 김만수 (2003). 『리영희, 살아있는 신화』, 서울: 나남출판.

- 김사승 (2010). 뉴스의 생산관행과 생산과정, 강내원 외, 『저널리즘의 이해』, 서울:한울.
- 김상웅 (2010). 『리영희 평전—시대를 밝힌 사상의 은사』, 서울: 책보세.
- 김성해·반현 (2011). 『저널리즘의 복원—고품질 저널리즘을 위한 글로벌 전략과 한국의 비전』,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옥조 (2004). 『미디어 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리영희 (1974). 『전환시대의 논리—아시아·중국·한국』 서울: 창작과 비평사.
- 리영희 (1980 [1977]). 『이상과 이성』 (2판), 서울: 한길사.
- 리영희 (1984). 『분단을 넘어서』, 서울: 한길사.
- 리영희 (1988). 『역정—나의 청년시대』, 서울: 창작과 비평사.
- 리영희 (1996.3). 전두환·노태우형 대한민국병 증후군, 『월간 말』.
- 박선희 (2012). SNS 뉴스 유통과 소비: 다중성(multiplicity)와 구술성(orality), 2012년 언론정보학회 봄철 학술대회 발표문.
- 설진아 (2011). 『소셜미디어와 사회변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안철홍 (1994.9). 화제의 작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펴낸 리영희 교수, 『말』.
- 오숙희 (1996년 3/4월). 파스한 자연인 리영희, 『참여사회』
- 조영신 (2011). 미국 허핑턴포스트의 현황과 성공요인, 『해외미디어동향』,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최민재·양승찬 (2009).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저널리즘』, 서울: 한국언론재단.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황용석 (2012). 클라우드소싱과 저널리즘, 『2011해외미디어동향』,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한국신문의 미래전략: 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보고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Burns, A. (2005). *Gatewatching: Collaborative Online News Production*, NY: Peter Lang.
- Freedman, S (2006). *Letter to a Young Journalist*. 조우석 역(2008) 『젊은 저널리스트들에게』, 서울: 미래인.
- Gillmor, D. The End of Objectivity, 25 January 2005,
(http://dangillmor.typepad.com/dan_gillmor_on_grassroots/2005/01/the_end_of_obje.html)
- Fraser, M. and Dutta, S (2008) *Throwing Sheep in the Boardroom*, 최경은 역(2010) 『소셜네트워크 혁명』, 서울: 행간.
- Newman, N. (2009) The rise of social media and its impact on mainstream media,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RISJ), Working paper.
- Newman, N. (2011) Mainstream media and the distribution of news in the age of social discovery,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RISJ). Working paper.
- Newman, N., Dutton, W. and Blank, G. (2011) Social Media in the Changing Ecology of News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 Case in Britain, RISJ Working paper.
- Rosen, J. Objectivity as a form of persuasion, 7 July 2010.
(http://archive.pressthink.org/2010/07/07/obj_persuasion.html)
- Shirky, C (2008) *Here Comes Everybody*, 송연석 역(2008) 『끌리고 쏘리고 들끓다』, 서울: 갈리온.
- Ward, S. J. A. (2009) Journalism ethics, in Karin Wahl-Jorgensen and Thomas Hanitzsch (ed)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NY: Routledge.

ABSTRACT

**The Change of Media and Emerging Journalistic Norm and Value:
An exploration Based on the Young-hee Rhee's Idea**

Bong-Hyun Lee*

This study investigates normative role model of the journalists under the changing environment. Firstly, this article explores what pressure the new media environment gives to the journalists in their routine of new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se are stated from the angle of epistemological, professional and interactive pressure.

Next, as a reference for the standard journalism in the age of mass media, the idea of Rhee Young-hee, a late journalist who won respects from many Korean journalists, is studied. His firm belief in the pursuit of hard facts, rigorous investigative writing and expertism are spelt out.

Then, this study explores how, in real term, this pressure changes the journalistic value, norm and practices in the newsroom. Ten of Koran journalists are interviewed in order to get their idea about the emerging journalistic standards under the digital environment.

From this in-depth interviews, it is concluded that the pursuit of hard fact, investigative writing, expertism of Rhee Young-hee are, nonetheless the change of the media technology, still effective and provide good reference points for the enhancement of the standard of journalism in Korea. However,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methods to fulfil desirable journalism in the digital age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mass communication age. The interviewees make propose that the journalist, as a network node, news curator or coordinator, should actively interact with the audiences facilitating their enhanced potential as a news 'prosumer'(producer and consumer).

Keywords: Journalistic Norm and Value, Rhee Young-hee, News Prosumer, Idea of Journalism.

* Research Fellow, Hankyoreh Economic Research Institute